94년도 新年辭

농림수산부장관 金良培

우리는 오늘, 우리의 農林水産業과 農漁村을 위해 獻身하겠다는 각오 속에서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農漁民여러분과 農林水産 公職者는 물론 農林漁業과 관련있는 모든 분에게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1993년은 우리 농림수산 분야에 있어 「變化」와 「試鍊」과 「激動」이 함께 한 참으로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여름철 기온이 떨어지는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어민 여러분께서는 뼈아픈 흉작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7년여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됨으로써 開放化, 國際化의 물결이 우리 앞에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정성을 기울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신 여러분께 마음으로서부터 慰勞와 敬意를 보냅니다.

새로 맞이하는 1994년 새해에도 우리는 지난 해의 연장 선상에서 우리가 꼭 해야할 일들을 찾고,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 지혜와 힘을 합쳐 이를 성취해내는 한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全力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분명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의 여파는 우리 농림수산업과 농어촌에 많은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매우 힘들고 어려운 排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危機」는 동시에 「跳躍의 機會」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나온 역사에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닥쳐온 「危機」가 크면 클수록 이룩되는 「發展」 또한 더 크며 소중한 것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해 개방화, 국제화가 어쩔 수 없는 추세라면, 또 꼭 넘지 않으면 안될 山이라면 우리는 이를 우리의 농림수산업과 농어촌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란 위기를 우리의 농림수산업과 농어촌을 다시 살리는 기회로 삼아 농어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 모두에겐 농림수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나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農漁村對策으로 다음 몇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農政의 새로운 座標 設定입니다.

농정은 이제 農林水産業에만 국한해서 볼 수는 없으며, 農漁村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 분들이 살고 계시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범위를 크게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체 국가 발전, 전체 國益과 調和되는 방향에서 농림수산시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째는, 農漁民 여러분께 신뢰받는 농정상, 國民 모두에게 이해되는 농정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고치고 버릴 것은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농림수산업도 開放化, 國際化 추세에 부응하여 앞으로 世界와 競爭할 수 있도록 각 부문별로 長短期計劃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향해 일관성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추진해온 農漁村構造改善事業을 과감히 앞당겨 실현하고 品目別로 특성을 감안한 競爭力向上對策을 세워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고 일하는 農林水産공직자상을 꼭 정립코자 합니다.

농림수산공직자는 농어민 여러분이 있으므로 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거운 責任感을 갖고 꾸준한 自律的인 內部改革을 통해 개방화, 국제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림수산 공직자상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大統領께서는 기회있으실적마다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의 기틀을 다지시겠다고 밝히신바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대통령의 농어촌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집념과 충정을 구체적으로 具現하고 實踐해 나가는 한해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일마다 큰 보람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농어민 여러분과 농어민 단체, 그리고 농림수산 공직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있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傘下支部動靜

▲협회본부

◉생약재 공개경매 실시 : 본부는 금년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협회 중앙공판장에서 농민, 사무소장들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황기, 당귀, 향부자 등 30여품목을 공개 경매로 유통시킨바 있다.

이번 경매는 지난해 9월 첫경매에 이어 세번째 실시한 것으로 최근 생약재 재배 농가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공정하게 팔수 있는 곳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이같은 공개 경매제를 도입했다.

이날 경매에는 서울시내 한약상및 약업사, 한의원, 한약방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공판장장은 「이날 경매 참석자들이 서면 제시한 응찰값은 48시간이 지난뒤 발표키로 했다」면서 「이는 각 주산단지 농민 대표및 사무소장들과 협의를 거쳐 내정값 이상 일때만 낙찰시키기로 한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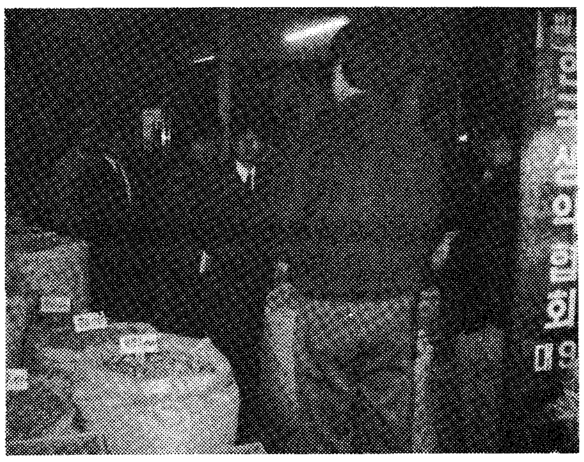
경매 방법은 경매에 응시하고자 하는 생약재 도매상을 대상으로 응찰 예정값의 5% 해당 금액을 공탁받은후 응찰값을 서면으로 제시받아 내정값 이상을 써낸 사람중에서 최고값 제시자에게 낙찰시킨다.

경매 수수료는 낙찰 금액의 5%을 받는다.

생약협회 宋景太회장은 「농민들에게 생약재가 다른 농산물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인식되면서 재배면적이 매년 20% 정도씩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이에 부응키 위해서라도 앞으로 매달 15일 공개 경매를 실시해 산지 수집상들의 농간을 차단하고 공정거래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협회 94년도 시무식 거행 : 지난 1월 4일 협회 사무실에서 회장단 이하 임직원은 94년도 시무식을 거행하고 이 자리에서 93년 잠업특작사업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본 협회 농림수산부장관 표창 시상자는 경기도 포천군 사무소장 이인기, 경북 의성군 사무소장 박종연, 전북지부장 김종근씨등 3명으로서 전국 26명 대상자중 산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본 협회만이 선정이되어 축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 경매입찰 광경

◉자연생 『백출』재배 성공사례 : 백출은 산야에서 채취 가능한 자연생에 의존해 왔으나 인건비 상승과 생산량이 줄어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국내 재배가 어려워 내수가 상당함에도 불구 수입에 의존해온 실정이다.

지난해 국내 생산량은 4백톤인데 반해 수요량은 3천톤으로 추정 이에 따라 국내 재배에 초점을 맞춰 협회 김용한 이사는 경북 지역에 백출배재에 대한 남다른 연구끝에 좋은 결실을 얻게되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선 93년 10월 28일, 93년 12월 9일 두차례 시범 재배 지역을 방문하고 현지답사하여 이모저모 사례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다.

○시범지역 : 경북영주시, 영풍군, 봉화군, 예천군
○재배농가 : 30농가
○재배평수 : 6만평
○평당수확량 : (건조) 5근→2년생

본 협회에선 지역 특작 대처 작물로 주산 단지화를 고시하고 근대화 된 성력가공 공장을 설치 하므로서 원가 절감과 동시 전체적으로 대농가 소득원을 높이고 부가 가치성있는 상품을 생산하므로서 국제 경쟁력에 대응토록 함과 동시 수입 억제및 재배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하지부

◉강원도지부 : 지난 12월22일 박영임 支部長은 춘천시소장 허수씨 주관으로 定例 支部會議를 召集하고 기간중 이지역 生藥材 유통현황에 대한 정보교류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94년도 특작작목에 따른 사업계획및 연구개발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토론하바 있다. 이날 本部에서 總務部長과 共販場長이 참석하여 94년도 약용작물 발전 계획을 시달하였다.

※본부시책 통지사항
○자체 생약연구위원회 운영 활성화
○우량 종묘의 생산 및 보급체계 확립
○재배 기술지도 사업 강화
○주산 집단화 단지 추가 지정 현실화
○기존 생약협회의 운영 개선으로 생산자로부터 신뢰 회복
○공동 이용이 가능한 지역별 가공시설 공장 설치
○국내 재배 생약의 수출증대

또한 『당귀』재배 개발에 따른 연구및 지역 특산 생약의 집산화 재배를 시도하여 주산단지 추가 지정및 가공공장 건립등 자연생 『천마』를 계약재배한 정선지역의 금년 3월 생산량에 따른 수매 관계등을 안건으로 토의 한바있다.

◉全南道支部 : 지난 12月15日 정형모 지부장은 전남 보성군에서 定例 支部會議를 召集하고 기간중 이지역 생약유통 현황을 상호 교환하면서 支部會議 發展및 단합을 위한 유대를 공고히 하였다.

◉경기도 지부 : 신현석 경기지부 총무는 지난 12월30일 서울 『삼화회관』에서 지부회의를 소집하고 협회가 당면한 제반 현황및 지부 현황 등을 토의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 강구 및 유대 강화로 회세신장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 바 있다.

※본부 지시및 홍보사항
○주산 집단화 단지 추가 지정 현실화
○우량 종묘의 생산및 보급 계획
○가공공장 설치 공동 운영 강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협조

○…서울특별시에서 총무 67503-1264호로(93년 7월 22일 접수) 사보발간 단체에 대하여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를 요청해 왔으므로(사보게재후 자료 송부) 다음과 같이 홍보자료를 연재로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고 깨끗한 우리 환경만들기에 모두 참여토록 합시다. 〈편집자 주〉…○

〈5〉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32、쓰레기 관련 수입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연간 3백29억만이 징수됨으로써 처리비용의 11.3%에 지나지 않아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누진함으로써 차등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 감량을 유도함과 동시에 처리비 신설 등 쓰레기 수거요금의 현실화로 쓰레기 처리비중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대형생활쓰레기

33、대형생활쓰레기란 무엇입니까?

냉장고, 세탁기, 캐비넷, 장롱, 소파등 부피가 크고 무거워 일반쓰레기와 함께 수집·운반·처리하기가 곤란한 쓰레기로 하루 평균 4백~5백톤씩 배출되며 특히 봄, 가을등 이사철에 주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34、대형생활쓰레기를 배출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형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배출품목과 규격등을 전화 또는 방문신고하고 매주 수요일 동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내어놓으면 됩니다.